

군산지역 '가격급등 아파트' 132채 실수요자 아닌 외지인이 94% 매입

거래 95%가 투기세력의 '갭투자'
불법거래도 65건 적발 과태료 부과
군산시 전체 아파트 대상 2차 조사

군산시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군산지역 아파트 거래인의 94%가 외지인이며 대부분이 이른바 '갭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지역 아파트값 과열이 실수요자가 아닌 외지인의 투기적 수요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군산시는 가격이 급등한 5개 아파트의 지난해 7~12월까지의 불법 거래 행위 등에 대해 특별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이 기간에 매매가 이뤄진 132채 가운데 94%인 124채를 외지인이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군산을 제외한 전북이 43%,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권이 36%, 대전·충남 15% 등을 차지했다. 실수요자로 볼 수 있는 군산시민의 거래 비중은 6%에 그쳤다. 이들 거래의 95%가량이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gap)를 이용하는 '갭투자'로 확인됐다. 이들 외지인 가운데 일부는 부동산 관련 카페·블로그 등에서 투자 정보를 얻어 직접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격 허위거래, 편법 증여 등 불법 거래 65건을 적발해 5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명의신탁 의심이 가는 거래에 대해서는 세부조

사를 하고 있다. 이번엔 조사 대상이 된 아파트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2~3개월 만에 가격이 30%가량 급등한 곳이다. 군산시는 15일부터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2차 특별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아파트 중 평균가 이상 거래, 30세 이하 거래, 다주택 거래 등 200여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들어간다. 특히 공인중개사에 대한 안행감시로 아파트 거래가격 담합 및 과광고 등 교란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투기 세력 때문에 내 집을 마련하려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더욱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 행위는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산림자원 육성사업을 통해 조성한 고창군 고창읍 덕정마을 숲. (고창군 제공)

고창군 울 숲 가꾸기 사업 19억여원 투입

46ha 산림에 나무 12만 그루 식재
고창군이 미래가치를 품은 경제성 높은 산림 가꾸기 사업을 펼친다. 고창군은 울해 '숲과 나무의 도시' 조성을 위해 19억9500만원을 투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숲가꾸기는 천연림과 인공조림지의 나무가 건강하고 우량하게 자랄 수 있도록 솎아베기나 가지 치기 등의 작업을 진행해 숲을 가꾸고 키우는 사업이다. 숲가꾸기 사업은 조림지가꾸기(덩굴 제거, 풀베기) 710ha, 어린나무가꾸기 100ha, 큰나무가꾸기 30ha, 산불예방 숲가꾸기 50ha, 공익림가꾸기 80ha로 총 970ha 산림을 관리한다. 숲 가꾸기를 통해 나무의 적절한 밀도를 조정하면 대형 산불 발생 확률을 낮추고 각종 재해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시 내·외곽 산림과

생활권 주변 등에 80ha 규모의 공익림가꾸기를 시행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산림을 조성·관리할 계획이다. 조림사업으로는 경제수(35ha), 미세먼지 저감(6ha), 큰나무 공익(5ha)으로 모두 46ha 산림에 경제성과 공익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12만1000그루의 나무를 식재할 계획이다. 김성근 고창군 산림공원과장은 "숲가꾸기와 조림 사업을 통해 나무 생장이 빨라져 고급재를 생산할 수 있으며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으로 개선될 수 있다"며 "앞으로 탄소배출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고창의 산림 자원이 장래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잠재력이 풍부한 숲으로 거듭나도록 가꾸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지난해 조림지가꾸기 600ha, 어린나무가꾸기 100ha, 큰나무가꾸기 200ha의 숲가꾸기를 추진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아이 키워드립니다"...순창군 맞춤형 보육시스템 구축

보육지원시스템 전면 개편 나서
미취학·저학년 안전보육 환경 조성

"낳기만 하면 키워주는 순창 만들기" 시책을 추진 중인 순창군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보육지원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순창군은 최근 아동·보육 업무담당자 회의를 열어 인구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순창 맞춤형 보육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구 유출과 유입의 불균형, 저출산 등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정된 사업은 미취학 아동의 감소가 학령인구, 생산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지가 담겼다. 만 3세에서 6세의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육시스템을 정비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순창군은 시행 중인 보육시스템 점검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순창 맞춤형 보육시스템'을 개발해 시범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보육시스템에는 인구 4만명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까지 담긴다.



순창군은 최근 아동·보육 관련 업무담당자 회의를 열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순창 맞춤형 보육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순창군 제공)

황숙주 순창군수는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지만 지방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순창형 보육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며 "낳기만 하면 순창군이 키워주는 보육·교육에 특화된 순창건설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순창=장영근 기자 jyg@kwangju.co.kr

정읍시·시민단체 '라벤더허브원' 특혜 공방

정읍지역 시민단체와 정읍시가 '라벤더허브원 조성 사업'과 관련 특혜 공방을 벌였다. 공공성강화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등 22개 단체는 지난 9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도 감사 결과 정읍시는 자격이 없는 농업회사법인이 소유한 산지를 농지로 변경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라벤더허브원 사업을 중단시키고 진상을 파악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농업회사법인은 2017년 산지를 매입해 호두나무 등을 심겠다고 산림경영계획을 인가 받았지만, 라벤더를 조성하거나 허브원 사무소 등으로 이용했다. 이들 단체는 "산지로 보전돼야 할 땅에 라벤더가 심어지고 허브원이 들어서 농업회사법인에 이익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또 "이 법인이 명의를 빌려 보조금 3억원을 불법 지원받은 사실이 전북도

감사 결과 드러났는데, 전북도는 정읍시 공무원 3명을 훈계 조치만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전북도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고발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읍시는 "대상지가 아닌데도 산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하고, 농지원부 확인 소홀로 보조금을 지급받도록 해 전북도로부터 감사 지적을 받았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공무원들을 훈계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정읍시는 그러면서 "당시 업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다시 되짚고 살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 전북취재본부장

수의계약 특례적용 기간 6월 말까지 연장 익산시 사업 발주 지역업체 우선 계약 확대

익산시는 각종 사업 발주 시 지역업체 우선 계약을 확대해 경기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14일 밝혔다. 익산시는 사업 발주 시 지역업체 수주를 확대하기 위한 수의계약 특례적용 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익산시는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수의계약 특례적용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에는 2인 이상 점적 수의계약 한도가 추정가격 기준 종합공사 4억원 이하, 전문공사 2억원 이하, 기타 공사 1억6000만원 이하 등 기존보다 계약 한도가 2배 상향돼 적용된다. 또 검사·검수나 대가 지급기한 검사·검수도 기존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대가 지급은 기존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해 준공 후 신속한 검사와 지급이 이뤄지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전기·통신 등 기타 공사는 지역제한 입찰 대상 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상향해 시행한다.

경쟁입찰을 통한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할 계획이다. 익산시는 '익산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지침'을 제정하고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매년 2회 이상 지역업체 생산제품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업체 발굴에 나서고 있으며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현황을 유관기관까지 확대해 홈페이지에서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업체 우선 계약을 위해 전 직원이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발주부서와 계약부서가 협조해 지역생산 제품을 우선 적용토록 추진, 수주율을 높이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역업체 우선계약을 활용해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제품들을 적극 구매해 지역생산과 지역업체 보호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